

# 과육 식감 제대로 살린 과일우유 출시

하노이지사

## 베트남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한 복숭아우유

- Coca-Cola Vietnam의 음료브랜드인 Nutri Boost에서는 지난 8월 중순에 복숭아 과육을 젤리형태로 씹어 먹을 수 있는 과일우유 Nutri Boost Bits를 출시했다. 이는 베트남시장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과일우유로 호치민시 7군에 위치한 대형마트 SC Vivo City에서 첫 판매가 이루어졌다.
- 제품은 복숭아의 달콤한 향기와 함께 설익은 복숭아 과육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지니고 있어 마셨을 때 상쾌한 느낌을 준다. 또한 건강에 유익한 칼슘, 아연, 비타민E, B3, B6를 함유하고 있어 주요 타겟인 젊은 층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Nutri Boost Bits 복숭아우유

##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호응 이끌어

- 액상형태의 과일우유가 전부였던 베트남시장에서 이번 제품의 등장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오고 있다. 탱글한 과육을 젤리처럼 씹을 수 있어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갈증해소와 함께 비타민까지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.
- Nutri Boost는 Nutri Boost Bits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. 특히 시음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과육이 들어있는 과일우유의 식감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각인효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다.

## 한국산 과일을 함유한 신제품 개발 필요

- Nutri Boost Bits의 출시를 계기로 베트남 소비자들은 과일우유에 과육이 함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. 따라서 유사제품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에 적기라 판단된다.
- 또한 베트남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일우유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딸기, 배, 사과, 포도 등 한국산 과육을 함유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.
- 베트남 소비자들은 베트남의 고질적인 식품위생 안전문제로 인해 제품의 안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며, 제품의 맛과 향 등 본질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. 따라서 소비자가 오감으로 제품의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원재료의 가공을 최소화한 제품 개발과 더불어 위생적인 제품생산 과정을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을 펼치는 전략적 자세가 요구된다.